

# 선교사 별장 문화재 추진... 종교편향 논란

## 사료 가치 충분 對 자연환경 훼손

일부 기독교 단체가 지리산에 선교사 별장을 문화재등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지리산 권역 5개 전통사찰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선교사 별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건물임을 명확히 인식해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는 성명서를 5월 9일 발표했다. 이어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등록문화재 등재시도와 관련한 일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건립한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으나 1962년 후 린탄(한 국명 인후, 1926~84) 선교사가 다시 재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 총 12채가 남아 있다. 현재는 서울대 학습림 구역에 속해 있다.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인요한)은 2009년에 이어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등록문화재 등재요청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19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 보존 및 운영을 위한 신탁협약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 단체, 지

**해발 1200m 위치 왕시루봉 별장 2009년 이어 문화재등록 제시도 화엄사 등 지리산 6사찰 반대 성명 종교시설 확장과 선교활동 우려**

역사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존 지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장 인요한씨 아버지는 후 린탄이다.

화엄사, 쌍계사, 연곡사, 천은사, 실상사, 대원사 등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음 시 국가 시책에 동조해온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리산 권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형환경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해 왔다"며 "사찰 소유지내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보수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이미 2004년에도 문화재 가치정을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최종 심의 결과 지정 부결된 적 있다.

지리산 전통사찰들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등록문화재 지정 시도는 민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족의 성지이자 절대적인 자연보존구역인 지리산의 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즉시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에도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좌절된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재 제시도는 일부 정부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집행과 이에 편승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도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일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중에서도 생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별장. 현재는 폐허 상태로 12채가 남아 있다.

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선교사 별장 철거 후 자연경관 회복, 고유 식생으로의 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경허로' 지정, 5월 23일 도로명판 제막식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 진입로가 경허로(鏡虛路)가 지정됨에 따라 고령농공단지 사거리에서 5월 23일 도로명판제막식이 열린다. 경허로는 천장사 입구에서 신송리까지 5km 구간이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고령면 신송리~장요리까지 3.8km 구간을 경허로로 명명했다. 나머지 1km는 천장사 입구로 올라가는 길이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경허로는 충남의 불교 관련 첫 명예도로"이라며 의의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전국에 이름난 스님 법명을 딴 도로명은 몇 군데 더 있다. 서울에는 원효 스님을 기리는 원효로가 있으며 충북 서산시 간월암 근처 무학로, 전남 화순 진각로, 경북 영주 의상로, 강원도 홍성 만해로가 도로명의로 지정돼 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심의를 거쳐 재지정된다.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에는 법정 도로명과 함께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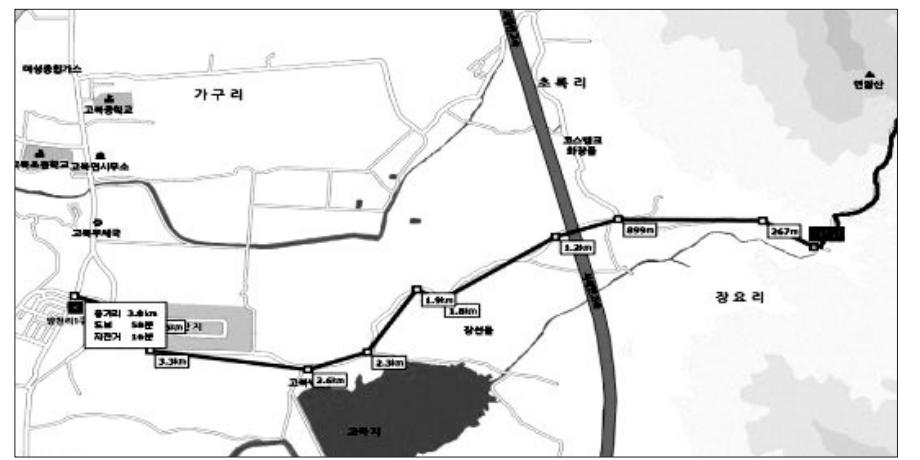
경허로 지정에는 허정 스님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스님은 신도 130여명과 함께 기존에 '고수관로'로 명명된 천장사 진입로를 '경허로' '천장사로'로 바꿔줄 것을 서산시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심의에서 부결됐고 올해 1월 명예도로명을 신청해 경허로를 통과시켰다.

천장사는 경허 선사 열반 102주기에 맞춰 경허로 제막식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경허 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이다.

허정 스님은 "경서 스님의 제자인 수월, 해월, 만공 스님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려지는 경허선사는 천장사에서 오로 기간 수행하며 머문 바 있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서산 신송리~장요리까지 경허로로 지정된 천장사 길.

## 군산 교도소 여성 재소자 선운사 방문 체험

법만 스님, '팔정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 당부



법만 스님이 선운사를 방문한 군산교도소 여성 재소자들에게 팔정도 실천을 당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법만 스님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하게 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회견학프로그램을 주관한 성광문 법무부 광주교정연화회장은 "여성불자들이 행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신 군산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사회처우 일환으로 사회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용자들의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에 협조해준 선운사 주지스님 이하 여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정기적으로 군산교도소의 법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불자재소자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동국사, 3.1절 기념 백일장 시상식

이치노헤스님, 금광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백일장 시상식에서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3.1절을 기념해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주최한 백일장 시상식이 5월 14일 금광초등학교(교장 주광순) 강당에서 열렸다.

동국사와 금광초등학교는 지난 4월 일제 강점기 일제의 조선침탈을 고발하는 기획전 '조선명당에는 신사가 있었다'를 관람한 금광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병설유치원생 대상으로 백일장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일제 강점기의 참혹상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감상을 다양한 글로 표현했다. 최우수상인 백범상에는 5학년 조혜경 어린이가 차지했고 우수상인 안중근상

에는 김민음어린이가 수상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동국사 지원모임 회원인 일본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직접 방한해 금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지난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종걸 스님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 정의로운 한국의 큰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치노헤스님은 이번 방한길에 1938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경찰강습서' 졸업앨범을 비롯한 여러 점의 사료를 동국사에 기증했다.

그동안 동국사는 이웃의 금광초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급식비를 후원해 왔다.

한편 동국사에 전시중인 일제침탈 기획전 '조선명당에는 신사가 있다'는 연인원 2만여명이 관람했으며 오는 6월까지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여수 청암사, 광주소년원생에게 자비행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가 사찰순례 일환으로 소년원을 방문해 자비행을 펼쳤다.

청암사 스님과 신도 50여 명은 매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통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5월 11일 방문, 소년원생 163명을 포함해 교직원 및 봉사자 등 2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광주소년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가운데 이날 청암사 대중들은 심시일반 기금을 모아 소고기, 밥, 반찬 4종류의 푸짐한 점심을 마련해 소년원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거창하게 큰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았다"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소년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일 신도들이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소년원생과 1대 1 멘토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 수여는 물



광주소년원인 고통정보산업학교에서 5월 11일 급식 자비행을 펼친 여수 청암사 신도들과 주지 지암 스님

론 나들이행사, 식료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때 '광주소년원'이라 불렀던 고통정보산업학교는 전국 10개 청소년 교화시설 중 직업교육 특화학교로, 현재 17세 이상 19세 미만의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자동화용접, 건축환경설비, 중앙비운전 등 4개 부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개 강 : 6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4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 (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뒤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 (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 지방 참가자를 위한 2일 단기집중 강의 과정 신설

◇ 개 강 : 6월 2일 월요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종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